

모두 발언

2024. 2. 2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I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

‘23년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0% 증가하여
과거(‘13~’22)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 과거 10년(‘13~’22) 평균 가계신용 증가율(%) : +6.8%
최근 가계신용 추이(조원) : (‘21)1,862.9 → (‘22)1,867.6 → (‘23)1,886.4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한은) : (‘21)105.4% (‘22)104.5% (‘23(예상))100.8%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GDP 증가율’ 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십여년간('05~'21)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만큼,
이는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다만, 올해도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❶ 대외적으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였으나,
대출금리 하락이 본격화 되는 경우,
그간 감소세가 이어오던
신용대출·2금융권 대출까지 반등할 우려가 높습니다.

❷ 금융권의 과당경쟁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년중 금리 여건 등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울 경우,
불필요한 대출경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합니다.

❸ 아울러, 정책모기지 공급규모 및 속도에 대한
일부 우려의 시선도 존재합니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간 적절한 조화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금년도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소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할 것입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유형별, 용도별 대출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협의해나갈 방침입니다.

둘째, 정책모기지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밀하게 관리해나갈 것입니다.

가계부채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지원하면서도,
공급규모가 과도하지 않도록,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금년 중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민간 발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 재유동화 등

IV 마무리 말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노력이 대출현장에서 나타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못지않게,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 ①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해
금융권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 ②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며,
- ③ ‘상환능력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정부당국, 학계, 금융권이 모두 모인만큼,
향후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